

# 浣巖 鄭來僑 墓文의 特性 考察

—〈金澤甫墓誌銘〉과 〈弟妻孺人邊氏墓誌〉를 중심으로—\*

강혜정\*\*

|| 차례 ||

- I. 머리말
- II. 浣巖 墓文의 特性 : 個性的 序文
- III. 議論을 통해 본 人物評
- IV. 序文의 破格성과 人物評의 指向點
- V. 결론

## 【       】

본고는 浣巖 鄭來僑의 〈金澤甫墓誌銘〉과 〈弟妻孺人邊氏墓誌〉를 대상으로 그의 글이 기존의 묘문과 비교했을 때, 개성이 발휘된 측면이 무엇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묘문으로서의 상투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두 묘지는 중인 정내교가 그의 친구와 가족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 이 묘주들은 사회 경제적 처지가 정내교 자신과 비슷한 여향인들이었다.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던 묘문이 중인 작가의 손에서 중인 묘주들을 위해 기술되면서 기존의 묘문과는 변별되는 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묘문은 모두 서문과 의론부를 갖추고 있는데, 서문에서 완암의 독특한 글쓰기 방법이 드러났다. 〈金澤甫墓誌銘〉은 서두에서 망자를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던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했는데 이는 ‘稱美而不稱惡’이라는 묘지의 서술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지만 후반부에 깨달

\* 본고는 심사 과정에서 후반부의 논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도록, 좀 더 나은 논문이 되도록 조언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

\*\* 고려대학교 강사

음을 얻은 이후 크게 변화된 모습을 서술하여 결국에는 망자의 인품과 행적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주었다. 이는 먼저 굽혔다가 후에 높이는 ‘俯仰折旋’의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으로 칭송 일변도이던 기존의 묘문과 차이를 보이면서, 진실성을 획득하고, 실감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며 망자를 기리는 묘문으로서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弟妻孺人邊氏墓誌>는 삶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묘문의 본래적 성격과 달리 묘주의 삶의 행적은 외면하고 임종의 장면만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임종의 장면에서 직접인용을 통해 진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망자의 성품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簡詳法을 극단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문에서 완암의 개성적인 글쓰기로 형상화된 인물은 의론부에서 문인과 열녀로 평가받고 있다. 삶의 행적을 기록하는 서문에서는 개성 있는 글쓰기 기법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의론부의 인물평은 유교적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에서 당대의 가치 규범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대부와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졌지만, 그 지향가치는 사대부와 다르지 않았던 중인이라는 작가의 신분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며, 당대 서울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소품체라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의 영향과 묘문이라는 장르가 가진 보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정내교, 김택보 묘지명, 제처 유인변씨 묘지, 완암집, 김만최, 유인 변씨, 정민교

## I. 머리말

沈巖 鄭來僑(1681-1759)는 흥세대를 이어 여항 시대<sup>1)</sup>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는 중인문학의 일부로 다루어져왔고<sup>2)</sup>,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주로 천기론이나 사회시에 집중되

1) 연구자에 따라 중인, 여항인, 위항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인은 신분 계급에 따른 것이고, 여항, 위항인은 꼬불꼬불한 거리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회 경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정후수, 『중인문학연구』, 깊은샘, 1990.;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연구』, 창비, 1997.; 차용주, 『한국위항문학작가연구』, 경인문화사, 2003.

어 왔으며,<sup>3)</sup> 작가론도 역시 한시 작가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왔다.<sup>4)</sup> 그의 시가 일찍부터 주목받은 것에 비해 傳을 제외한 산문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鄭來僑는 동시기 문인들로부터 詩보다 文이 뛰어난다는 평을 받을 만큼 文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sup>5)</sup> 그는 여러 종류의 산문을 남겼는데<sup>6)</sup> 碑誌傳狀類에 해당하는 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7)</sup> 이 중 祭文과 哀辭는 주로 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해<sup>8)</sup> 傳과 墓文에는 여향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6편의 傳 작품은 일찍부터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았지만<sup>9)</sup> 그의 묘문은

3) 김성희, 『정내교 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8.; 이형주, 『완암 정내교의 문학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1995.; 최연희, 『정내교 문학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8.; 성하진, 『정내교의 시 세계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허경진, 『정내교, 정민교 형제의 사회시에 대하여』, 『목원 어문학』8, 목원대 국어교육과, 1989.

4) 손병국, 『완암 정내교론』, 『조선후기 한시작가론』1, 이회문화사, 1998.

안순태, 『완암 정내교의 삶과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15, 태학사, 2011.

5) 潤卿非獨工於詩 其文善俯仰折旋 頗有作者風致. 論者或曰文勝於詩. 余以爲潤卿之詩與文 一出於天機而已. 何必論長短也哉. (이천보, <완암집서>, 『완암집』) 維雄有詩. 詩又不如文. 文乎詩乎. 又孰與其爲人. (김종후, 浣巖鄭翁 來僑 墓誌銘 并序, 本庵集卷八)

6) 序(4), 記(6), 題跋(4), 傳(6), 雜著(3), 箴(1), 銘(4), 贊(3), 上樑文(2), 祭文(6), 哀辭(5), 墓文(7)

7) 각주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51편 중 24편이 이에 해당한다.

8) 祭文 申靖夏(소론) 朴泰觀(김창흡 교유), 尹憲柱,(형조판서) 洪鉉輔(영의정 흥봉한父), 宋公, 金公(김종수 父)

哀辭 洪龜祚(老論 洛論 김원행의 장인), 申皓(신정하의 子), 李夢鯉(여향인), 宋百順, 高隱堂 金公(김종수 父)

9) 傳은 6편( 吳孝婦傳, 翠梅傳, 金聖基傳, 林俊元傳, 白光炫傳, 金鳴國傳)이 있다. 이경수, 『위향예술인의 형상화와 정내교의 전』, 『새터 강한영교수 고회기념논문집』, 아세아문화사, 1983.

정병호, 『17,18세기 여향인의 문학적 초상과 정내교의 전』, 『동방한문학』14, 동방한문학회, 1998.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근 <김택보 묘지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타자와의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자아의 성찰과 정체성의 변화에 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한 것으로<sup>10)</sup> 묘문으로서의 글쓰기 방식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墓文도 傳과 마찬가지로 한 인물의 삶을 형상화해내는 방식이다. 게다가 墓文은 작가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傳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작가 의식 및 글쓰기 특성을 살피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본디 碑誌류는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다. 사대부의 손으로 사대부나 그 가족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일반 서민들은 함부로 비석을 세울 수 없었고, 중인층도 예외가 아니었다.<sup>11)</sup> 그런데 중인인 정내교가 비슷한 처지의 땅자를 대상으로 쓴 묘문이 존재하고 있다. 중인 鄭來僑가, 사대부가 아닌 여향인들을 대상으로 쓴 묘문은 기존의 묘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묘문과 鄭來僑의 묘문이 달라지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그가 남긴 7개의 묘문 가운데 묘주의 신분, 묘주와 정내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글쓰기가 허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편, 즉 <金澤甫墓誌銘>과 <弟妻孺人邊氏墓誌>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sup>12)</sup>

김용남, 『완암 정내교의 전 고찰』, 『개신어문학연구』15, 개신어문학회, 1998.

10) 김경희, 『정내교의 <김택보 만취 묘지명>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고찰』, 『감성연구』 13집,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2016.

11) 이종호, 『비지류 산문의 전기문학적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380면. 그래서 대체로 傳이라는 양식으로 이를 대신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한다. 『호산외기』, 『이향견문록』 같은 전기물이 이를 반영한다고 한다.

12)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지 않은 玄德潤과 金慶門도 중인에 속하지만 이들은 당대 현 달한 역관 가문 출신으로 대외무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같은 중인신분이지만 정내교와는 처지가 달랐다. 흥세태는 정내교와 사회, 경제적 처지가 비슷하였지만, 그는 정내교의 스승으로 상하관계에 따르는 검열의 시선으로부터

이 두 묘문은 망자가 사대부가 아니라는 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작가와 망자와의 관계, 청탁의 시선이라는 요소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묘문이 갖는 정형성에 덜 얽매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묘주들은 모두 여향인으로서 鄭來僑 자신과 사회, 경제적 처지가 비슷하였으며, 정내교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었다. 유인 변씨는 동생 정민교의 아내로 가족 구성원이었다. 태보 김만취는 임준원, 홍세태, 정내교, 정민교 등과 같이 활동한 洛社 詩人이었다.<sup>13)</sup> 낙사의 활동무대는 서울의 우대지역이었고 구성원은 기술직 중인이 대다수였다.<sup>14)</sup> 즉 김만취와 정민교 모두 기술직 중인으로서 정내교와 사회 경제적 처지가 유사한데다가 빈번하게 모여 시를 짓고 격려할 만큼 가깝게 지냈던 관계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정내교가 김만취나 정민교 처의 묘지를 작성할 때 다른 자료, 즉 행장이나 유사에 기댈 필요 없이 자유롭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게다가 이 글들은 청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지어진 성격이 강하기에, 이 두 편의 묘문은 정내교의 다른 묘문보다도 더 개성적인 글쓰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고는 정내교가 두 편의 묘지명에서 어떻게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하지만 그가 묘문이라는 형식의 글을 쓰고 있는 한, 기존의 묘문과 본질적으로 달라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두 편의 묘문이 기존의

---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3) 구자균, 『한국평민문학사』, 민족문화사, 1982, p.226.

14) 강명관, 앞의 책, p.76.

15) 유인 변씨의 경우, 그녀가 시사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남편이 낙사의 일원이었던 점에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친분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묘문에 비해 개성이 발휘된 측면이 무엇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묘문으로서의 상투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浣巖 墓文의 特性 : 個性的 序文

碑誌류의 하나인 墓誌銘은 산문인 序와 운문인 銘으로 이루어져 있다. 序는 성명-가계와 출신-행력과 성품-죽음과 장지-처자손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에 銘이 붙는다. 傳狀類는 銘 대신 史評이 놓일 뿐 이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sup>16)</sup> 그런데 본고에서 다룬 두 편의 묘문은 序文의 구성요소를 갖춘 후, 銘이 나오기 전에 혹은 銘은 생략된 채 議論에 해당하는 글이 들어 있다.<sup>17)</sup> 각 편에 따라 구성요소의 순서도 바뀌어져 있고, 글의 내용이나 특성도 조금씩 다르지만 두 편 모두 인물평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序에서 일화를 중심으로 행적과 성품을 다소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면 의론부는 상대적으로 주관적 평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序文과 의론부에서 보이는 글쓰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서문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성부터 살펴보자.

### 1. 俯仰折旋의 기법 <金澤甫墓誌銘>

澤甫 金萬叡(1660-1735)는 鄭來僑(1681-1757)보다 20세나 나이가 많았지만 서로 망년지교를 맺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신방(1685-1736)의

16) 정순희, 앞의 논문, p.310.

17) <김택보묘지명>의 경우 銘이 놓이기 전에 의론부가 나오고, <제처유인변씨묘문>의 경우 銘없이 의론부로 끝나고 있다.

『屯菴集』에 수록된 <김만취전>에 의하면, 김만취가 정내교를 특히 좋아하여 “둘이 만나면 서로 시간가는 것을 잊고 문학과 세상사를 논했다”<sup>18)</sup> 고 하였으니 둘은 그야말로 뜻이 통하는 친구이며 선후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내교는 이러한 친구의 묘지명 서두를 범상치 않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① 김택보의 이름은 만취이다. 가계는 호남의 광주에서 나왔다. 집안이 예전에는 벼슬하던 신분이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미천해졌고, 그 선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醫院을 직업으로 했다. 그도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가난했으므로 가업을 이어서 의술을 배웠다. 그러나 뜻에 맞지 않아 집어 치우고 마침내 악소년들과 사귀며 개백정 노릇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얻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자유분방했으며, 매인 데가 없었다. 술을 좋아했는데 이따금 기세를 부려 사람을 쳤다.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게 되자, 고향 마을에선 그를 걱정하였다. 하루는 백정들과 놀러 갔는데 한 동료가 풍자하여 말했다. “자네는 의사일세, 다음에 잡히더라도, 나까지 끌어들이진 말게” 그는 즉시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 동료에게 사죄하였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 책을 읽었는데 하루에도 수천 마디씩 외웠다. 배움에 가죽띠를 하고 온화하게 처사의 행동을 하였다.<sup>19)</sup>

<金澤甫墓誌銘>의 서두이다. 가계를 간단하게 서술하였지만 그 내용

18) 獨喜閭巷士鄭來僑之爲人 折年以友之 每相遇扳援古今 評騭詩文 朝而夜 夜而朝 猶不厭 尤喜論世事

19) 金君澤甫名萬取 系出湖南之光州 家舊衣纓族 而後世淪微 其上祖與父業醫 君少孤而貧 嗣爲醫學 而意不愜去之 遂結惡少年狗屠爲事 得甘旨以養母 然君性疎放不羈 嗜酒使氣 往往搏擊人 至被傷者衆 鄉里患之 嘗游屠中 人有諷之者曰 子義士也 它日被逮 慎勿累我 君卽感悟泣涕謝其徒 折節讀書 能日誦數千言 布衣韋帶 雍容爲處士之行(<金澤甫墓誌銘>, 『완암집』 권4)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가져왔고, 해석은 허경진, 『조선평민열전』(알마, 2014)을 따랐다.

이 묘지명에 담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본디 양반출신이지만 의술을 하는 중인신분으로 전락하였고, 그의 대에 이르러는 천민의 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악소배와 어울리며 개백정 노릇을 했다는 내용은 흔히 ‘稱美而不稱惡’이라는 묘지의 서술원리에 따르자면 거론하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다. 나아가 그의 성품이 자유분방하고, 술을 좋아하여 타인에게 危害를 가했으며, 그로 인해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의당 감추어야할 사실인데 정내교는 굳이 이를 묘지명의 맨 앞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 때 벼슬하던 집안의 자손이 개백정 노릇을 하고, 사람을 해쳐 마을의 걱정거리로 전락하였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묘지명은 기존의 묘문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그러나 태보는 한 순간의 깨달음으로 태도를 바꾸어 책을 읽고 온화한 처사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미 그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있었기에 독자에게는 그의 변화의 폭이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태보는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뜻이 크고 강한 사람으로 인지된다. 즉 앞서 그를 굽혀서 서술했기에 후에 그를 높이는 서술이 더욱 힘을 얻고,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는 글에 변화를 주고, 칭송으로만 일관하는 것보다 더 강한 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내교의 개성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천보는 “윤경(정내교)은 비단 시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문도 잘하여서, 俯仰折旋에 능하였고 자못 작자의 풍치가 있었다. 어떤 논자는 문이 시보다 낫다고 한다. 나는 윤경의 시와 문이 하나같이 천기에서 나왔을 뿐이라고 여기는데 어찌 장단을 논할 것인가”<sup>21)</sup>라고 하였다. 이천보가 정내

20) 이런 점에서 볼 때, 묘지명이라기보다는 포폄을 겸하는 傳의 성격의 옛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 산문에 대해 ‘俯仰折旋’이라고 할 만큼 그는 굽히고 높이고 전환하고 돌려 말하는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데, <金澤甫墓誌銘>에서 굽혔다가 높이는 기법이 절묘하게 사용되었다. 흔히 묘지명은 망자를 칭송하는 글로만 이루어져 지루하고 상투적이기 쉬운데, 정내교는 망자를 잠시 낮추었다가 높이어 글에 변화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망자를 더욱 더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묘지명에 사용된 ‘굽혔다가 다시 높이는 기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독자에게 또 다른 효과를 주고 있다. 그것은 일단 인물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도리어 실감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타 묘지명과 달리 인물이 다각도에서 조명됨으로써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인물로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러한 종류의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더 큰 원칙, 즉 ‘진실성’을 획득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비지문은 “살아서는 평범한 사람이 죽어서는 장황하게 찬미되어, 임금일 경우에는 요순의 반열에 오르고, 신하일 경우 이윤과 여상의 사이에 참여하게 된다”<sup>22)</sup>는 비판을 받을 만큼 단점을 빼고 장점만 장황하게 찬미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독자들은 본 묘지명의 부정적 서술 때문에 도리어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신뢰하게 되고, 또 이 인물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관심은 또 다른 글쓰기를 양산해 내기도 하였다.<sup>23)</sup>

내 나이 열여덟에 삼청정사에서 그(택보)를 만났다. 키는 여덟 자에다 수염이 아름다웠다. 이야기를 끝없이 펼치는 것을 보아 그가 어질고도 호탕한 사

21) 潤卿非獨工於詩 其文善俯仰折旋 頗有作者風致. 論者或曰文勝於詩. 余以爲潤卿之詩與文 一出於天機而已. 何必論長短也哉.(이천보, <완암집서>, 『완암집』)

22) 신작, 『原碑』, 『석천집』 권1. 안득용의 글 p.235에서 재인용.

23) 신방, 『김만취전』, 『둔암집』 권7. 신정하의 조카인 신방이 본 묘지명을 토대로 『김만취전』을 지었다.

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한번 보더니 매우 기뻐하면서 친구라고 불렀으며, 나이를 따지지 않고 사귀었다. 당시 그의 문장이 크게 나아져서 이미 뛰어나다고 이름이 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를 문인이라고 보지 않고 반드시 협사라고 불렀다. 그가 젊었던 시절의 기백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말이나 의논, 또는 시 가운데에 연나라, 조나라의 선비들처럼 비분강개하는 뜻이 많이 나타났다. 그는 40여 년을 떠돌아 다녔으므로 그의 가난은 더욱 심해졌다. 변변한 살림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쓸렁한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남에게 급한 사정이 생긴 것을 보면, 남들보다 늦을 세라 걱정하며 달려갔다. 남들과 사귀는 때에는 청탁을 묻지 않았다. 뜻에 맞으면 비록 천하고 더러운 사람일수록 더욱 공경하였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sup>24)</sup>

서문의 후반부이다. 태보가 삶의 태도를 바꾼 후, 세상 사람들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를 반드시 ‘俠士’라고 불렀다고 한다. 연암은 힘으로 남을 구하는 것을 ‘俠士’라고 하였다.<sup>25)</sup> 협사로서의 그의 자질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급한 사정이 생긴 것을 보면, 남들보다 늦을 세라 걱정하며 달려갔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여전히 武力이 그의 특성으

24) 余年十八 遇君於三清精舍. 身長八尺 美鬚髯. 談論袞袞 知其爲賢豪間人也 君一見余歡甚 呼與爲友 托以忘年之契 時君文詞大進 已杰然有聲 而世之人知與不知未嘗以文人目之 必曰俠士 蓋其少日氣習猶未盡除 而發於言議歌咏者 亦多有燕趙感慨之音也 君旣浮游四十餘年 其窟益甚 環堵蕭然 妻子饑寒 而見人有急 赴之惟恐後 與人交 不問清濁 意之所可 則雖賤污愈益敬 以是愛慕者甚衆. (<金澤甫墓誌銘>, 『완암집』 권4)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가져왔고, 해석은 허경진, 『조선평민열전』(알마, 2014)을 따랐다.

25) 힘으로 남을 구하는 것을俠이라고 하고, 재물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顧라고 한다. 顧일 경우 名士가 되고 俠일 경우 傳으로 남는다. 이 협과 고를 겸하는 것을義라고 한다. 以力救人曰俠 以財惠人曰顧 顧爲名士 俠猶著傳 兼俠與顧曰義. (박지원, 『輿中一』, 『완암집』5)

로 부각되지만 그 무력의 성격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게다가 당대 협사라는 호칭에는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희병에 의하면 18세기 중 후반 시정을 중심으로 민간은 물론이고, 사대부까지 遊俠을 숭상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한다.<sup>26)</sup>

근래 달문이 유협으로서 서울에 올랐다. 일찍이 그가 친구 집에서 놀 때, 그 친구가 은 一封을 잃고서 달문을 의심하여 “자네, 은을 가져가지 않았는가?”하고 묻자 달문은 “그래 내가 가져갔네”하면서 미리 말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사과하고는 곧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갚아 주었다. 얼마 후 그 친구는 잃어버렸던 은을 집에서 찾았다. 친구는 크게 부끄러워하며 달문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주며 거듭 사과했다. 달문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 자네 자네의 은을 찾았고 나는 나의 은을 돌려 받았으니 사과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로부터 달문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다. 綱錦子(이옥)는 말한다. “달문은 여항의 長者이지 유협은 아니다. 유협에 있어 귀한 점은 능히 재물을 가며이 여겨 남을 잘 돕고 의기를 숭상하여 困急한 이를 구휼해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음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유협이라 할 것이다.”<sup>27)</sup>(이옥, 『장복선전』, 『담정총서』<sup>24)</sup>

조선 후기에 달문이라는 인물이 유협으로 이름이 났지만, 이옥이 보기에 그는 遊俠이 아닌 長者에 불과하며 진정한 유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잘 돕고, 의기를 숭상하는 인물이라 하였다. 이렇듯 당대 유협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유협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대개 여항인 중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인물형은 17세기에 형

26) 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유협숭상과 유협전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9·10, 한국한문학회, 1987, pp.320-323.

27) 박희병, 앞의 논문, pp.313-314.

28) 조희룡, 『장오복 천홍길전』, 『김량원전』, 『호산의기』; 황인기, 『엄침지계홍전』, 『일수연어』9; 유재건 『김호고재낙서』, 『이향건문록』6

성되어 18세기 이후 문헌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정내교의 <임준원전>과 신방의 <김만취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sup>29)</sup> 정내교는 <임준원전>에서 중인들의 거주지인 서울의 북부 우대지역에 의협스런 무리들이 자주 있다(往往有任俠之徒)고 하여 중인층에 협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sup>30)</sup> 그리고 택보 김만취 역시 백련봉 아래에 집을 지었다고 하여 우대지역에 거주했던 것을 밝혔다.

이상 <金澤甫墓誌銘>의 序文을 살펴보았다. 첫머리에서 망자는 武力을 함부로 행사하던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으나, 이어지는 서술에서 그의 변화된 면모를 부각시켜 묘주의 인물됨이 더욱 칭송받게 되었고 나아가 진실성을 획득하고, 실감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俠士로서의 면모를 내세워, 전반부에서 부정적으로 서술되었던 그의 武力도 긍정적인 것으로 변모시켰다. 이렇듯, 鄭來僑는 벗이었던 김만취의 묘지명에서 처음에는 낮추었다가 후에 높이는 ‘俯仰折旋’ 기법을 적용하여, 칭송 일변도이던 기존의 묘문과는 차별성을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망자를 기리는 묘문으로서의 효과는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9) 박희병, 앞의 논문, 327면. 남유용은 정내교의 <임준원전>을 모방하여 같은 전을 남겼다.

30) 백련봉 서쪽부터 필운대까지가 북부이다. 대체로 가난하고 얻어먹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나 의협스런 무리들이 자주 있어 의기로 사귀어 노닐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였다. 흔쾌히 허락하고 남의 어려움을 잘 도왔으며 근심을 함께 하였다.(중략) 준원은 이미 재산이 넉넉해졌고 의로운 일을 좋아했으므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성에 안 차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서 혼인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원에게 왔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의 집을 드나들며 마치 자식들처럼 그를 모시고 공손히 대하는 자들이 또한 몇 십명이나 되었다. (정내교, 『임준원전』, 『완암집』4)

## 2. 極端의 簡詳을 통한 장면화 <弟妻孀人邊氏墓誌>

청탁에 의해 이루어진 여성묘주 묘지명은 행장이나 유사에 의존하기에 대체로 남성 묘주 묘지명보다 훨씬 더 일정한 형식과 정형적인 내용을 띠기가 쉬웠다.<sup>31)</sup> 하지만 鄭來僑의 <弟妻孀人邊氏墓誌>의 경우, 亡者의 남편인 정민교<sup>32)</sup>가 정내교가 형제였으며, 형제가 함께 詩社 활동을 했으므로 그녀의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변씨의 남편과 친정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친정 아버지도 멀리 떨어져 있기에 본 묘지명에 대한 검열의 시선도 미약하여 보다 자유로운 글쓰기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내교는 제수 변씨의 일생을 서술하는 데 있어, 그녀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건 하나만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구양수가 강조한 ‘簡而有法’<sup>33)</sup>과 상통하며, 김창협이 비지문의 찬술원리로 강조한 ‘簡嚴한 법도’<sup>34)</sup>와도 통한다. 김창협은 강령을 이

31) 강혜선, 『조선후기 여성 묘주 묘지명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 한문학연구』30, 한국한문학회, 2002, p.11.

32) 정민교(1697-1731) 본관은 창녕, 자는 계통, 호는 한천, 정내교의 동생. 29세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곧 그만두고 여항시인으로 행세하였다. 형을 이어 홍세태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시재가 있어 당시 여항, 사대부 사이에 이름이 있었다. 모친상을 치른 후, 집이 궁핍하여 한천으로 내려가 농사일을 하기도 했다. 평생 공직에 오른 적은 없고 다만 남의 집 記室을 지내는 데 그쳤다. 조현명의 객사에 머물다가 학질을 앓아 35세로 요절했다. 저서로 『한천유고』가 있다.

33) 구양수가 <윤사묘지명>에서 묘주의 글을 간이유법하다고 평한 데서 나온 말이다. 형식상의 簡과 내용상의 法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의미이다. 簡은 문장의 간결성과 제재를 택함에 있어 간명하게 한두 가지의 대표적 특성만을 부각시킨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김용표, 『구양수의 묘지문 분석을 통해 본 간이유법』, 『중국학연구』5, 중국학연구회, 1990, pp.118-121. 참조.

34) 碑誌와 史傳은 문체가 대체로 같다. 그러나 史傳은 그래도 상세하고 풍부한 것을 위주로 하는 반면에, 碑誌는 오로지 간략하고 엄격한 것을 위주로 한다. (김창협, 『농

루는 부분은 상세하게 서술하고 다른 부분은 소략하게 하여 簡과 詳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35)</sup> 정내교가 이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sup>36)</sup> 정내교는 본 묘문에서 簡詳法을 적용하되 매우 극단적으로 하여 다른 묘문과 차별화시켰다.

유인 변씨는 진사 정계통의 아내이다. 계통에게 시집온 지 16년 동안 시부모 섬기기를 매우 효성스럽게 했으며, 부녀자의 일에 있어서도 모두 부도에 맞게 했다. (정내교, <제쳐유인변씨묘지>)<sup>37)</sup>

墓誌의 서두이다. 인명과 행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핵심이 아니기에 과감하게 생략하고,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시집오기 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며, 시집 온 후 16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는 “시부모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였고, 부녀자의 일에 있어서도 모두 婦道에 맞게 했다.(事尊章甚孝 中饋盡婦道)”라는 10자로 정리하고는 곧장 그녀의 임종 장면으로 넘어갔다. 일반적으로 묘문이란 묘주가 남긴 삶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인데, 본 묘문은 이를 과감하게 생략하여 기존의 묘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격적인 기술 방법 역시, 정내교가 시도한 고도의 글쓰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내교는 제수의 묘문에서 살아서

암집』34권, 『雜識』) 碑誌與史傳。文體略同。而史傳猶以該瞻爲主。至於162\_374d 碑誌。則一主於簡嚴。

35) 송혁기, 『17세기말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박사논문, 2005, pp.191-192.

36) 그의 친기론이 김창협영의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법 역시 정내교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37) 孺人邊氏。進士鄭季通婦也。歸季通十有六年 事尊章甚孝 中饋盡婦道。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번역은 김경미 외,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6(보고사, 2010)을 따랐다. 아래의 인용문도 동일하다.

의 행적을 생략한 반면, 임종의 장면은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신해년(1731) 겨울 계통(정민교)이 영남 지방에서 객사하니, 유인이 충청 지방(한천)에 있다가 계통의 죽음을 듣고는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여러 날 동안 먹지 않았다. 얼마 지나 상여를 따라 서울에 이르러 장사 지냈는데 이미 병이 나버렸다. 식구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2월에 죽을 것이라고 진사군께서 이미 꿈에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했다. 병이 위독해지자, 오늘이 며칠인지 묻고 이르길, “아!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이니 내가 죽을 날이 오늘이구나!”라고 하고 나에게 이르길, “제가 죽기를 원하여 죽게 되는 것이니 어찌 슬프겠습니까? 뒷일은 공이 계시는데 또한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염할 때 비단으로 하지 마시고, 관도 반드시 얇은 것으로 해 주시며, 접쟁이의 말을 쓰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진사군의 묘에 합장해 주십시오. 궤연도 하나로 함께 하셔서 제사 음식 올리는 것을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두 여종을 경계하길, “제사에 음식을 올리는 것을 반드시 정갈하게 하고, 어린아이를 볼 때에는 게을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도 영혼이 있어 반드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기운을 내어 앉아서 말했다. “나에게 종이와 붓을 다오. 몇 글자를 쓰려고 한다. 내 부친이 천 리를 떨어져 계시니 오지 이것이 지극히 한스러울 뿐이다.” 말을 마치고 두 딸아이를 불러 앞에 두고 등을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슬퍼하다가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 나가 죽으니 임자년(1732) 2월 16일 갑진일이다. 이해 4월 17일 계통의 묘 원편에 합장했다. (제쳐유인변씨묘지)<sup>38)</sup>

38) 辛亥冬 季通客死嶺南 孺人在湖中聞喪 號擗不食者累日 旣而隨喪至京師葬 已疾作 謂家人曰 吾當以二月死 進士君已夢我告之矣 至是病革 問今日何日曰 噫 吾母氏亡日也 吾死其在今乎 告來僑曰 吾願死得死何戚 後事公在又何恨 我死歿母錦帛棺必薄 毋用術家言 必合葬我進士君墓 筵几同一位 以便祭饋 戒二婢曰 祭饋必潔淨 視幼兒毋怠 否者吾死有靈 必降罰汝 復作氣坐曰 與我紙筆 欲作數字 我父親千里相隔 獨此爲至恨爾 言訖 呼取兩兒女在前拊背 於邑者良久 遂斂衽就席而逝 壬子二月十六日甲辰也 以是歲四月十七日 附葬季通墓左.

변씨는 남편이 죽자(1731, 11, 3) 그를 장사지내다가 병이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1732, 2, 16) 죽었다. 장사 후 병이 나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죽음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 있지만, “내가 죽기를 위하여 죽게 되는 것”이라는 그녀의 증언을 덧붙임으로써,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선택적 죽음, 즉 자결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변씨가 죽게 되는 달은 꿈에 남편이 알려줬으며, 죽는 날짜는 어머니의 제삿날이라 하여 죽는 일자에 남편과 어머니를 결부시키고 있다. 게다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 편지를 남겨 효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한으로 삼는 효심을 드러내었다. 그녀의 죽음에 남편과 어머니, 아버지를 낄새로 엮어 예사롭지 않은 죽음으로 겹겹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제삿날에 죽는 것이 곧 효는 아니지만, 그녀의 죽음을 어머니와 연관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게 감지된다. 그리고 賢婦로서의 세세한 당부를 하고 여중에게 딸들을 부탁한다. 곧 있으면 고아가 될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어미의 마음은 “등을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슬퍼하였다”는 것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물론 이 짧은 표현에서 말보다 깊은 어머니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정내교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어미로서의 애끓는 정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의연함이었다.

<弟妻孺人邊氏墓誌>는 묘주가 살아온 행적은 생략하고, 임종의 장면만을 상술하여 기존의 묘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간상법의 극단적인 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서의 행적은 10자로 簡하고, 임종의 순간과 관련된 것들만 詳細히 서술한 것이다. 임종과 관련해서는 변씨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하여 마치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고 듣는 것처럼 장면화 시켰다. 변씨의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임종이라는 긴박한 상황이 주는 긴장감까지 더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묘지에서의 직접 인용 기법은 진실성,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인물의 성품을 구체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본 묘문에서도 추상화된 언술이 아닌 변씨의 목소리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그녀가 자신의 현숙함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매우 실감나게 그리고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내교의 묘문은 기존의 투식적 글쓰기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金澤甫墓誌銘>과 <弟妻孺人邊氏墓誌>의 서문에 형상화된 묘주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태보 김만취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좋을, 아니 통상 묘문이라면 의례히 감추었어야 마땅할 사실을 도리어 부각시키는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줬고, 유인 변씨는 삶의 행적은 간략하게 처리하고 임종의 장면만을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한 서술을 통해 독자들에게는 흥미로움을 주고, 두 묘주는 전형성 대신 당대 살아 숨 쉬었던 개성 있는 인물들로 남게 되었으며, 묘문은 망자를 칭송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議論을 통해 본 人物評

본고에서 다루는 두 편의 묘문에는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序文의 구성요소, 즉 성명, 가계와 출신, 행력과 성품, 죽음과 장지, 처자손록을 기술한 후 말미에 인물평에 해당하는 의론부가 추가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망자의 삶에 대한 최종 마무리이며, 망자에 대한 작자 정내교의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과 기술 방법이 앞서 서술된 서문에서 보여준 개성 있는 글쓰기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김만취에 대한 인물평을 보자.

그의 시는 冲澹하고 古雅하여 漢, 魏, 六朝의 풍을 얻었다. 삼연 김창흡 선생과 유하 홍세태 선생도 그의 시를 칭찬하셔서, 그와 같은 경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 아아! 그의 志氣와 才調를 옛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석연담과 진계상과 같은 부류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는 이미 세상에 뜻이 없고, 세상 역시 그를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후세에 그의 시를 보는 자들은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를 상상할 수 있을지라.<sup>39)</sup>

앞서 살펴본 대로, <김택보 묘지명>의 서두에서는 김만취의 부정적 행적을 서술하다가 후에 ‘협사’로서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의론부에 이르러서는 詩才가 뛰어났던 ‘文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대 최고의 사대부 문인 중 한 사람이었던 김창흡과 자신의 스승이었던 홍세태의 평가를 끌어와 그를 ‘뛰어난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내교가 묘문의 전반부에서는 망자를 협사이면서 문인으로 묘사하였으나<sup>40)</sup> 결국은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한 것은, 신방(1685-1736)<sup>41)</sup>의 『屯菴集』에 수록된 <김만취전>과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신방은 김만취의 협사적 면모를 드러내는 일화를 더 많이 소개하고 있는 반면<sup>42)</sup> 시

39) 君爲詩冲澹古雅 多得之漢魏六朝者 三淵先生與柳下翁亟加稱賞 以爲不易得 嗚呼 君之志氣才調 求之古人 爲石延年 陳季常者流 而君既無意于世 世亦無知君者 然後之覽其詩者 亦可以想其人也.

40) 정내교는 앞서 살핀 인용문에서도 “당시 그의 문장이 크게 나아져 이미 이름이 났지만 세상에서는 그를 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드시 협사라고 불렀다”라고 하여 그가 협사로 불리고 있는 현실과 함께 그가 문인으로 불려야 하는 당위성도 주장하였다.

41) 신방은 정내교와 친분이 두터웠던 신정하(1681-1716)와 숙질간으로 신방 또한 직간 접적으로 김택보와 교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심각한 환난이 있는 사람이라도 김택보의 一諾를 얻기만 하면 집에 돌아가 편안히 잠잘 수 있었”고 서울 시정에선 “모두 그를 중히 여겼다”고 하였다. 그의 모친이 죽었을 때 집에는 염습할 옷 한 벌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극력 주선해주어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人望과 평소의 私恩때문이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이는 정내교의 묘지명에서는 서술되지 않은 내용이다.

인으로서의 면모는 그다지 부각시키지 않았다. 신방은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烈士 英雄에 관한 시를 좋아했고, 그 역시 不平之氣를 품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협사로서의 면모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내교가 김만최의 시를 “깊고 담박하며 예스럽다(沖澹古雅)”고 한 것과는 다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정내교는 묘문의 마지막에 “그는 이미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고, 세상 역시 그를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그의 시를 살펴본 연후에야 그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서술로 인물평을 마치고 있다. 이는 김만최라는 인물을 시로 대변되는 문학작품을 통해서만 그려볼 수 있고, 평가받아야 하는 ‘文人’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정내교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처유인변씨묘지>의 경우 극단적인 간상을 통해 임종의 장면만을 부각시켰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鄭來僑는 왜 삶의 행적이 아닌 죽음의 순간을 묘지에 상세하게 담았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 역시 의론부에서 찾을 수 있다.

아아! 계통 정민교는 재주와 행실이 있어서 아름다운 선비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유인 변씨는 죽을 때에도 조용했고, 말하는 가운데 도리가 있었으니 어진 부인이다. 그러나 몇 달 안에 서로 이어 요절하니 어찌 화가 이토록 가혹한가? 계통이 꿈에 죽는 날을 알리고, 죽는 날이 그 모친과 같으니 모두 기이한 일이다. 미리 정해 둔 것이 있는 것인가? 슬프다!<sup>43)</sup>

여기에서 정내교는 변씨를 ‘어진 부인(賢婦)’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씨의 어진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살아서의 행적보다 임종의 순간을 주목했

43) 嗚呼 季通有才行 名世佳士也 孺人臨死從容 言中道理 賢婦人也 然相繼夭歿於數月之中 何之酷也 季通之夢告以死日 死日之同其母氏 俱可異焉 豈亦有前定者歟 悲夫

던 것이다. 죽음을 통해 여인의 미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賢婦’는 ‘烈女’와 맞닿아 있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유인은 죽을 때에도 조용했고(孺人臨死從容)”이라는 표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혜순은 ‘從容’이라는 단어는 열녀를 찬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이며, 특히 조선 후기 열녀전에서 지연된 순절을 서술하고 ‘從容就死’했다는 데에 그 찬미가 모아지고 있다고 하였다.<sup>44)</sup> 따라서 정내교가 변씨의 입종에 주목한 이유는 아마도 그녀를 ‘열녀’로 묘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순절한 여인만을 열녀라 했다. 변씨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자결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녀는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가 되는 것이다. 남편의 장례까지 치르고 죽는 것이니 순절이 지연되던 당대 흐름에도 부합한다.<sup>45)</sup> 당대에는 烈行의 실천과 거리가 멀었던 향량을 국가 열녀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sup>46)</sup> 정내교 또한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변씨의 죽음을 최대한 효과 절로 포장하여 열녀라는 이름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묘문에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던 이러한 의도가 당대 및 후대 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여향문학총서』의 해제에서는 “그의 부인 변씨도 한천이 죽은 뒤 얼마 안 되어 **따라 죽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열녀**라고 칭송했다”고 하였고,<sup>47)</sup> 남편의 묘표에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었다.

44) 이혜순, 「열녀전의 입전 의식과 그 사상적 의의」,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p.14.

45)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의 전개와 유형」,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pp.35-36.

46) 향량은 숙종 2년(1702) 목숨을 끊은 지 2년 뒤, 국가로부터 열녀로 인정받아 정려문이 내려진다. 향량전에 관해서는, 정출헌,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참조.

47) 『여향문학총서』1 한천유고 해제, p.17.

군(정민교)의 아내 변씨에게도 어진 행실이 있었다. 군이 죽자 극도로 자기 몸을 상해가며 죽고자 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 또한 군이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된 것이리라.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리다. 아들은 없다.<sup>48)</sup> (안중관, 『묘표』, 『한천유고』부록)

안중관이 쓴 변씨의 남편 정민교의 『묘표』이다. 여기서 아내인 변씨의 ‘어진 행적’의 실체는 살아서의 어떤 행적이라기보다는 남편을 따라 죽은 ‘죽음’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게다가 이 죽음은 남편을 법도로 삼아 그를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후대의 기록들 속에서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烈女’가 된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어린 딸에 관한 기록이다. 앞서 인용한 <제처유인변씨묘지>에서는 분명 변씨가 두 딸의 등을 어루만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딸이 하나라고 되어 있다.<sup>49)</sup> 저자의 착오가 아니라면, 아마도 변씨가 죽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도 죽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린 고아가 살아남기에는 당대 현실이 혹독하였을 것이다. 정내교는 제수의 묘문을 쓰면서 그녀의 한평생이나, 예견된 어린 조카의 불행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로지 그녀의 죽음을 통해 ‘열녀’라는 綱領만을 세세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 살펴본 대로, 의론부에 이르러 김만취는 文人으로, 변씨는 烈女, 賢婦 즉 ‘당대의 바람직한 인물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이루어졌던 논의를 종합하면, 정내교의 묘문은 전반부인 서문에서는 다양한 기법으로 과격적인 글쓰기를 시도했지만, 후반 의론부에 이르러서는 당대의 바람직한 인물상으로 평가하며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반부는 기존 사대부의 묘문과 확연히 다른 글쓰기를 보여줬지만, 후반부에서 보여준 지향점은

48) 君配邊氏 有賢行 君死毀甚 求死乃死 亦君之善刑然也 有一女尙幼 無男子子

49) 정내교의 <망계계통본말>에서도 어린 딸만 하나 있다고 하였다.

사대부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IV. 序文의 破格性和 人物評의 指向點

정내교 묘문의 특성은 서문의 파격성과 인물평의 보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 원인을 고려해보자. 우선, 서문에서 파격적이고 개성적인 글쓰기가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정내교의 뛰어난 文才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대에 이미 묘문이 천편일률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사대부 중 文才가 뛰어났던 이들도 많았지만, 사대부가 남긴 묘문 중에는 이렇듯 파격적인 글을 찾기 힘들다. 사대부가 사대부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묘문을 작성할 경우 사방에 존재하는 검열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기에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묘주의 삶 역시 기존의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항인의 삶은 사대부의 것보다 다채로운 양상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검열의 시선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정내교가 참신한 글쓰기 방법으로 인물을 형상화하며 묘문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신분이 중인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물평에서 보인 지향점이 사대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 역시, 중인이라는 신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인들이 당대 사회에서 지향하였던 바가 사대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대 사회는 유교적 가치 이념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중인이든 사대부이든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강명관은 여항문학에서 사대부문학과는 다른 독자성과 근대성을 기대하고 확인하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고 하였다.<sup>50)</sup> 정내교도 사대부의 모습을 엄두에 두고 여항인도 여기에서 뒤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했기에 묘주들이 모두 유교적 덕목을 갖춘 것으로 그려낸 것이다.

김만취의 경우, 전반부에서 협사적 면모를 부각시켰으나 결국 文人으로 안착시킨 것은 그를 문인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가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강명관은 任俠의식이 여항인의 자기 계층의식으로 수용되고 있었으며, 이 임협의식은 재래의 지배질서를 이탈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였다.<sup>51)</sup> 박희병도 <김만취전>에서 김만취가 당대에 시정에서 담당했던 역할은 ‘解紛釋難’과 ‘樹義立名’으로 요약되는 바, 이는 새로운 민간질서의 담당자였다<sup>52)</sup>고 보았다. 하지만 <김택보 묘지명>속의 김만취는 협사이지만, 재래의 지배질서를 이탈하거나 새로운 민간질서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문인으로서의 면모가 강조되면서, 기존 질서의 테두리 안에 있으되 개성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3)</sup>

그렇다면, 정내교가 굳이 김만취를 체제내적 인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벗이었던 묘주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싶었던 우정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전에 간절히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죽어서라도 남기게 하고픈 글쓴이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죽은 자를 통한 ‘산 자의 욕망’도 작동했을 것이다. 뛰어난 시재를 가졌지만 신분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중인 정내교가, ‘문인’의

50)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연구』, 창비, 1997, p.6.

51) 강명관, 앞의 책, pp.64-65.

52) 박희병, 앞의 논문, pp.332-333.

53) 이는 정내교가 김만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가 어질고도 호방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한테서 잘 드러나고 있다.

로 대변되는 그 체제 안으로 편입하고자 했던 욕망이 투영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내교에게 김만취는 벗으로서 자신과 사회적, 경제적 처지가 비슷했던 같은 신분의 구성원이었다. 김만취가 그의 신분적 한계와 젊은 날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문인’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면, 이는 정내교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수 변씨를 ‘열녀’로 규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묘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산 자의 욕망’은 그가 남긴 다른 작품 <오효부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내교는 <오효부전>에서도 죽음으로 효를 실천한 여성을 그려내었다. 오효부는 여항에 사는 가난한 집 자손인데 집에 불이 나자 神主를 보전하기 위해 두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타죽었다. 입전 의도는 <오효부전>의 말미에 잘 드러나 있다.

아아, 어찌 그토록 용감한가! 내가 보건대 예로부터 스스로 의롭게 죽는 사람은 선비나 군자의 무리 가운데서 많이 나왔고, 평민은 전혀 없거나 조금 있었다. 천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군자도 늘 어려워하는 것이었으니 평민 여자가 한 것은 더욱 귀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 오씨 여자는 매우 가난한 집의 평범한 여자일 뿐이어서 이익과 의로움을 취하고 버리는 구분을 반드시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두 딸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신주를 급하게 여겨 불길 속에 뛰어들어 죽으니 이것이 어찌 억지로 하는 데서 나온 것이겠는가? 대개 그 천성이 그러해서 하는 바가 스스로 의리에 맞았기 때문이다. 비록 옛날의 백희, 조아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오효부전』, 『완암집』4)

정내교는 예로부터 ‘효’를 위해 ‘스스로 의롭게 죽는’ 사람은 선비나 군자의 무리에서 나왔으나 평민의 무리에서는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평민 여자인 오효부가 효 때문에 선택한 죽음이 값진 것이고, 그래서 전을 지어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여항에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효부전>을 지었다면, <제 처유인변씨묘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정내교가 제수의 묘문을 통해 여항인 중에서도 한미한 축에 속하는 자신의 가문에 ‘열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가문을 드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같은 처지의 벗과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었던 묘주를 문인, 열녀로 자리매김한 것은, 자기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었던 이들이 신분은 사대부만 못하지만, 시재 혹은 절개에 있어서는 사대부보다 못할 바가 없는 ‘당대의 바람직한 인물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중인으로서의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망자를 기억하기 위한 글쓰기에 산자의 욕망이 채색되는 것은 비단 정내교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에 일반화된 祭亡室文의 경우 망자를 잃은 슬픔보다 망자의 행적에 대한 칭송으로 치달으며 ‘非-제문적’ 글쓰기가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글쓰기에 대해 박무영은 ‘적극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것, 즉 17세기 후반 이후 재편되는 유교적 가족 질서와 확대되는 가문 의식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망자에 대한 의례를 규범을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즉, 당대의 사대부들 역시 가문의식을 재생산하는 교육의 도구로 제문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sup>54)</sup>

정내교가 의문부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합당한 인물평을 내린 것 역시 그의 신분적 특성 외에 묘문이라는 장르의 특성에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묘문이라는 것이 한 인물의 행적을 후세에까지 전하여

54) 18세기 제망실문에 관한 논의는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회연구』32, 한국한문학회, p.213, pp.317-352를 참조하여 요약 발췌한 것이다.

褒章하기 위한 글이다. 따라서 유가 이념이 지배했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을 평가하는데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한 인물에 대한 포장은 그 시대가 지향하거나 강요한 궁정적 이념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런 의미에서 포장 위주의 비지류는 체제내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보이게 마련이다. 대상이 되는 인물의 공과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가의 지배 이념을 넘어서지 않는다는<sup>55)</sup> 비지류 장르가 가진 보수적 성향을 고려한다면, 정내교의 비지문이 개성을 발휘하더라도 체제내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러한 장르적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서문에 드러난 파격적이고 개성 있는 글쓰기는 더더욱 주목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는 당대 서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던 소품문의 성행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소품문은 16세기 말엽부터 조선에 수용되어 몇몇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고<sup>56)</sup>, 18-19세기에는 광범위하게 문단에 영향을 끼쳤는데 소품 작가들은 전통적 문체의 기본적인 형식은 대체로 유지하되 글쓰기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바꾸었다.<sup>57)</sup> 정내교의 묘문 역시 묘문으로서의 형식은 유지하되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몰개성적이고 의식적인 실용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글쓰기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품문의 영향이 감지된다. 하지만 소품문이 기존 질서에 반발하여 조선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개혁하려는 지성인의 의도까지 담아내고 있는데 비해<sup>58)</sup> 정내

55) 정순희, 「고문론과 비지류의 상관성 재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p.307.

56) 허균의 소품문적 성향에 대해서는, 김풍기, 「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민족문화연구』3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참조.

57)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p.28.

교의 묘문은 개성적인 글쓰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 질서에 편입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V. 결론

정내교는 지인들의 죽음 앞에서 상투적인 묘문이 아닌 개성이 돋보이는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김만취의 경우 褒와 貶을 겸하여 망자를 높이고 당대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했으며, 弟嫂 변씨의 경우 임종의 장면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현장감을 극대화시켰다.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던 묘문이 중인 작가의 손에서 중인 묘주들을 위해 서술되면서 기존의 묘문과는 변별되는 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묘문에 담기는 삶이 사대부에서 중인으로 변화하면서 글쓰기도 변화한 측면이 있다. 김만취와 같이 협사적 성향을 보이는 인물은 이전 사대부 집단에서는 찾기 힘든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내교가 묘문이라는 완고한 형식의 글을 쓰면서, 俯仰折旋과 簡詳法이라는 글쓰기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두 편의 묘문이 후반 의문부에 이르러 당대의 이태올로기 속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상투성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비지문이 주제의 참신성보다는 서술 자체의 짜임에 중점을 둔다<sup>59)</sup>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문부의 상투성으로 평가절하하기보다는, 개성 있는 글쓰기를 시도했던 것에 주목하고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8) 안대회, 앞의 논문, p.27.

59) 안득용, 「16세기후반-17세기전반 비지문의 전범과 서술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39, p.225.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완암집』  
『농암집』 34권  
『여향문학총서』1

### 2. 논문 및 단행본

-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연구』, 창비, 1997.  
강혜선, 『조선후기 여성 묘주 묘지명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 한문학연구』30, 한국한문학회, 2002, p.11.  
구자균, 『한국평민문학사』, 민족문화사, 1982, p.226.  
김경미 외,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6, 보고서, 2010.  
김경희, 『정내교의 <김택보 만취 묘지명>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고찰』, 『감성연구』 1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김성희, 『정내교 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8.  
김용남, 『완암 정내교의 전 고찰』, 『개신어문학연구』15, 개신어문학회, 1998.  
김용표, 『구양수의 묘지문 분석을 통해 본 간이유법』, 『중국학연구』5, 중국학연구회, 1990. pp.118-121 참조.  
김풍기, 『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민족문화연구』3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32, 한국한문학회, 2003.  
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유희승상과 유희전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9,10, 한국한문학회, 1987.  
성하신, 『정내교의 시 세계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손병국, 『완암 정내교론』, 『조선후기 한시작가론』1, 이회문화사, 1998.  
송혁기, 『17세기말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5, pp.191-192.  
안대회 엮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비지문의 전법과 서술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

학연구』39, p.225.

- 안순태, 「완암 정내교의 삶과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15, 태학사, 2011.
- 이경수, 「위향예술인의 형상화와 정내교의 전」, 『새터 강한영교수 고회기념논문집』, 아세아문화사, 1983.
- 이중호, 「비지류 산문의 전기문학적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p.380.
- 이형주, 「완암 정내교의 문학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이혜순, 「열녀전의 입전의식과 그 사상적 의의」,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p.14.
- \_\_\_\_\_, 「조선조 열녀전의 전개와 유형」,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pp.35-36.
- 정병호, 「17, 18세기 여향인의 문학적 초상과 정내교의 전」, 『동방한문학』14, 동방한문학회, 1998.
- 정순희, 「고문론과 비지류의 상관성 재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p.307.
-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 정후수, 『중인문학연구』, 깊은샘, 1990.
- 차용주, 『한국위향문학작가연구』, 경인문화사, 2003.
- 최연희, 「정내교 문학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8.
- 허경진, 「정내교, 정민교 형제의 사회시에 대하여」, 『목원 어문학』8, 목원대 국어교육과, 1989.
- \_\_\_\_\_, 『조선평민열전』, 알마,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Epitaphs written by Jung Naegyo(鄭來僑)  
—Focusing on <The Epitaph of Kim Taekbo(金澤甫墓誌銘)>  
and <The Epitaph of Mrs. Byun,  
Sister-in-Law(弟妻孺人邊氏墓誌)>

Kang, Hye-jung

This paper analyzes both the unique and the conventional aspects of the epitaphs written by Jung Naegyo(鄭來僑), as compared to the typical epitaphs of the period. At the start of <The Epitaph of Kim Taebo>, Kim is described as an undesirable person and a bully, and this passage violates the unstated premise of epitaph writing that the author should always write positive things about the deceased. However, later in life, Kim became a great man after he changed his perspective, which Jung recounts. This epitaph is illustrative of his style, as he liked to use the technique of initially blackening his subject's reputation and praising him or her later. This tactic allows readers to recognize Kim's remarkable abilities and to gain an authentic sense of him. Jung's epitaphs are distinguished from many other eputaphs through the use of this technique. <The Epitaph of Mrs. Byun, Sister-in-Law> subverts another convention, as it omits the story of Byun's life and details only the events surrounding the eve of her death instead. While it runs counter to the convention of epitaph writing that the auther should relate the arc of the deceased's life, it describes how Mrs. Byun was undaunted by the fear of death, and how her fortitude complemented her benevolence as a mother and wife. In the end, Kim and Byun are evaluated as a great writer and a virtuous woman, respectively. The first halves of both epitaphs are replete with unique techniques, but their subjects are ultimately praised as honorable people, as was the case with the subjects of other epitaphs. I believe the dual aspects

of these epitaphs, the unique and the conventional, are related to the dynamic between Jung Naegyo's iconoclastic temperament and his middle class status. Since he was relatively free from the strictures of custom, he could display his individual writerly style. However, as he lived in Confucian society, he also looked forward to becoming a respected member of that society.

Key Word : Jung Naegyo(鄭來僑), The Epitaph of Kim Taekbo(金澤甫墓誌銘), The Epitaph of Mrs. Byun, Sister-in-Law(弟妻孺人邊氏墓誌)

강혜정

소속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dreamtree88@korea.ac.kr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